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lomberg: 12월 미 일자리 모멘텀 둔화…4만 1천 개 생겨
- Bloomberg: 12월 미 서비스 활동, 지난 1년간 빠르게 확장
- JP 모건 보고서: 10개 글로벌 전략 테마: 극단화 현상 확대
- CNNBusiness: 미 중견 기업들 작년 호황 후 올해 '신중한 낙관론'

[미국 금융]
- Bloomberg: 금, 은, 백금 하락… 투자자들 수급 불균형 등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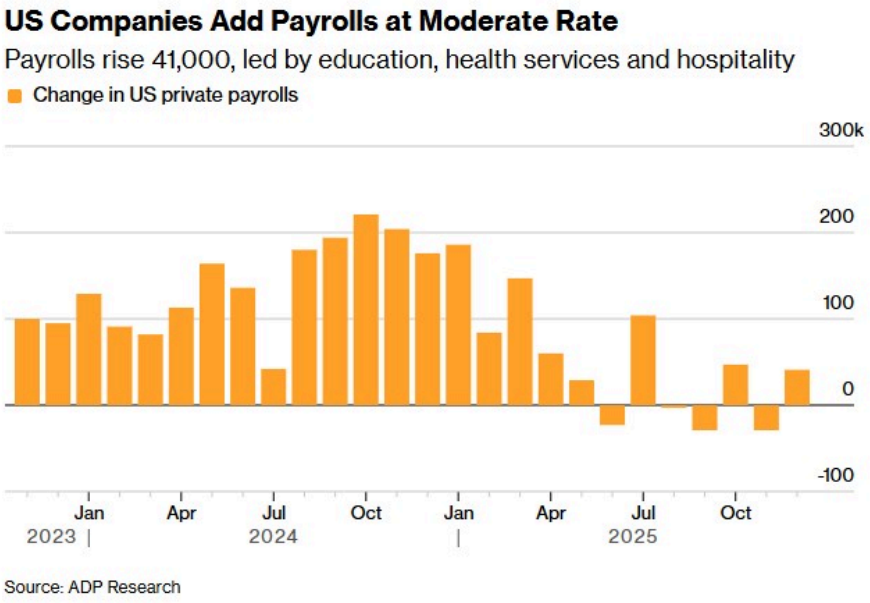
[휘발유/오일]
- CNNBusiness: 베네수엘라 사태에도 불구, 올해 휘발유값 코비드 이래 가장 낮을 듯
- WSJ:트럼프와 오일 회사 대표들 이번 금요일 회동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WSJ: 새로운 비즈니스가 실패할 10가지 주요 이유
- CNNBusiness: 현대, 고객에게 구독형 로봇 판매 예정
- WSJ: IKEA, 중국 내 7개 매장 철수…작은 매장에 주력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Companies Added 41,000 Jobs in December, ADP Says
12월 미 일자리 모멘텀 둔화…4만 1천 개 생겨

- 관련 조사 기관 ADP에 따르면 지난 12월 일자리가 완만하게 성장했다. 즉, 2026년 들어서면서 모멘텀에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
- 12월 일자리는 4만1천개 증가했는데 특히 교육, 헬스 서비스와 레저, 환대 산업이 증가세를 주도했다.
-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직한 근로자의 봉급의 6.6%로 상승했으며 그대로 있는 직원의 12월 상승률은 4.4%에 머물렀다.

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US Services Activity Expands at Fastest Pace in Over a Year
12월 미 서비스 활동, 지난 1년중에 가장 빠르게 확장

- 미국의 서비스 활동이 12월의 경우 1년여 기간과 비교해 가장 빠르게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. 수요가 견조했과 관련 고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.
-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의 서비스 지수는 1.8 포인트 성장한 54.4로 나타나 지난 2024년 10월 이래 가장 큰 수치였다. 50 이상일 경우 확장을 가르킨다.
- 구체적으로 신규 주문은 2024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, ISM(공급관리협회)의 제조업 생산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기업 활동 지수는 1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. 수출 주문 또한 1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.

Bloomberg 기사

JP 모건 보고서 : Top 10 Strategic Themes for 2026 and Beyond: Polarization in a world of extremes
10개 글로벌 전략 테마: 극단화 현상 확대

- K 형태의 경제가 강화되고 있다. 금융 여건 완화, 정부 주도의 재정, 빠른 기술 혁신이 시장 모멘텀을 키우고 있지만 자산 계층과 근로 계층 간의 불균형한 K 형태의 경제는 벌어지고 있다.
- 기술 혁신의 AI뿐만 아니라 바이오테크, 퀀텀 컴퓨팅, 반도체, 핀테크 등 다변적이 면으로 확대되고 있다. AI가 자본 지출, 원자재 수요, 다변화된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면서 올해 S&P 500은 8,000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.
- 감세 관련 트럼프의 OBBBA는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지만 노동 공급 성장 부족과 생활비 부담은 해소되지 않아 저소득층과 젊은 층에 힘든 영향을 끼치고 있다.
- 3가지 P인 Paradoxes(경제지표는 좋은데 체감 경기는 좋지않음), Polarization(정치 경제 양극화), Productivity(기술 혁신의 불균형 성장)이 미 중간선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. 생활비가 유권자의 주요 이슈로 남아 있다.

-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무역이나 관세 이슈보다 관세 관련 연방 대법원 판결이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.
- 미·중 갈등의 기술 전쟁인데 이것이 무역과 자원 흐름을 바꿀 것이다. 즉, 중국의 전기 생산과 재생에너지 파워가 글로벌 공급에 영향을 주지만 오일 가격 하락에 압박을 가하는 반면에 금속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다.
- 사모펀드, 금, 암호 화폐 등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지만 성과는 불확실하다.
- Deficits, Deregulation, De-population, De-carbonization, De-globalization and De-dollarization이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중에 재정 적자와 규제 완화가 가장 즉각적인 리스크와 기회가 되고 있다.

Blooimberg 기사

CNNBusiness: America's midsize businesses express 'cautious optimism' for 2026 after exuberant 2025: JPMorgan survey
미 중견 기업들 작년 호황 후 올해 '신중한 낙관론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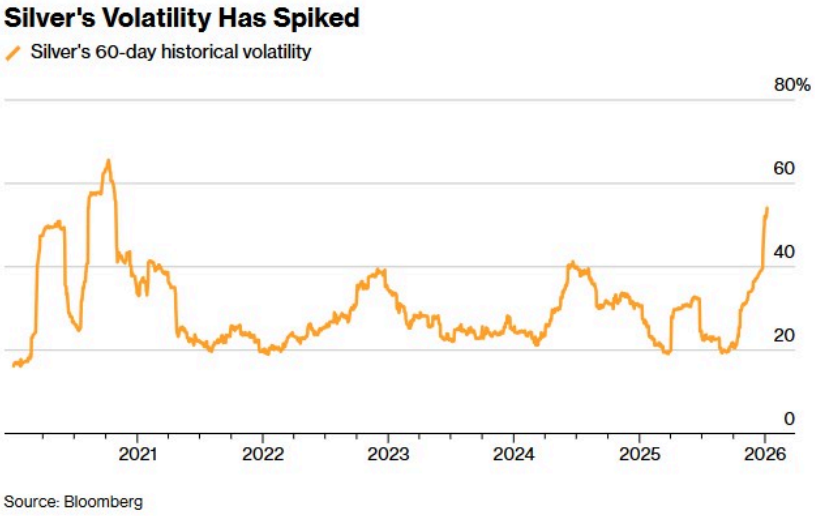
- 미 중견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 경제의 낙관론은 줄어들었다.
- 오늘 수요일 JP 모건 설문에 따르면 중견 기업들 경영자 중에 39%만이 올해 미국 경제가 낙관적이라고 말했다. 이는 1년 전 같은 시기의 답변 65%에서 감소한 숫자다. 지난해에는 경제가 대한 자신감이 지난 5년 이래 최고치였다.
- 이번 설문에 관여한 이 은행의 관계자 Melissa Smith는 이 같은 현상을 '신중한 낙관론'으로 부를수 있다고 말했다. 경제 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.

CNNBusiness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Gold Drops as Traders Look Past Geopolitical Risk to US Data
금, 은, 백금 하락… 투자자들 지정학 리스크보다 미 경제 지표에 주목

- 은과 백금 가격이 급락하며 최근의 이례적인 변동성을 이어갔다.
- 이는 트레이더들이 지수 재조정(Index re-weighting)에 따른 매도세와 시장 수급 불균형, 그리고 미국의 잠재적 관세 영향을 주시한 결과로 보여진다.
- 금 가격 또한 하락했습니다.



Bloomberg 기사

[휘발유/오일]

CNNBusiness: Despite Venezuela, forecasters say 2026 will be the cheapest year for gas since Covid
베네수엘라 사태에도 불구, 올해 휘발유값 코비드 이래 가장 낮을 듯

- 최근 희발유 가격이 각종 물가 인상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. 베네수엘라 사태 변수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은 올해 들어서도 낮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.
- 관련 기관 GasBuddy에 따르면 올해 갤런당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달러 97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.
- 이 같은 예상이 맞을 경우 올해는 휘발유 가격이 4년 연속 하락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난 2020년 이래 갤런당 3달러 아래를 기록하는 첫해로 기록된다.

CNNBusiness 기사

WSJ: Trump and Oil Executives to Meet Friday to Talk About Venezuela
트럼프와 오일 회사 대표들 이번 금요일 회동

- 이번주 금요일 트럼프와 미국의 주요 오일회사 CEO들이 만나 베네수엘라 오일 부분에 미국이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- 구체적으로 Chevron, ConocoPhillips와 Exxon Mobil 등의 책임자들이 백악관에 참석하게 된다.
- 이들 미 회사들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베네수엘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The Top 10 Reasons New Businesses Fail

새로운 비즈니스가 실패할 10가지 주요 이유

- 관련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비즈니스의 반 정도만 2년 동안 생존하고, 단지 3분의 1 기업들만 5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지난 2020년 2분기 시점에 소기업 중 8.5%가 문들 닫았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두배 수치다.
- 실패 이유는 예컨데 팀웍이 아니라 혼자하는 경우, 그리고 너무 빨리 성장시키려고 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. 성공과 실패에 대한 교훈이 없는, 즉 경험 부족도 어려움을 주게 된다.
- 사업에 대한 열정이 강할 경우에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.
- 새로운 비즈니스 투자 결정 등 주요한 이슈에 대해 내부 갈등이 있을 경우 회사 어려움을 겪게 된다.
- 대기업보다 외부 환경이나 충격에 노출되기 쉽다. 설사 소기업들은 외부 환경에 쉽게 대응하기 힘들지만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.
- 마지막으로 책임자 자신이 통제하길 원해 다른 의견에 대해 완고한 경향이 강할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.

WSJ 기사

CNNBusiness: Hyundai isn't just making robots — it's making subscriptions
현대, 고객에게 구독형 로봇 판매 예정

- 현대자동차는 오는 2028년까지 수천대의 로봇을 생산하는 제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. 현재 AI 작동 로봇의 대량 생산 글로벌 경쟁에서 Boston Dynamics의 큰 지분도 갖고 있다.
- 물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로봇을 판매하게 되는데 일회성 판매보다는 구독형 로봇을 판매할 예정이다.
- 서비스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주고, 소프트웨어 업데이트, 하드웨어 스케일링, 리모트 모니터링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된다.

CNNBusiness 기사

WSJ: IKEA to Close Seven Stores in China as Part of New Focus on Smaller Outlets
IKEA, 중국 내 7개 매장 철수…작은 매장에 주력

- IKEA가 2월 2일부터 중국내 7개 대형 매장을 폐쇄할 예정이다. 부동산 침체와 중국 매장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.
- 대신에 베이징과 센젠에 향후 2년에 10개의 소형 매장을 열게된다. 이 회사는 대형 매장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치밀하게 중국 시장을 파고드는 전략으로 바꾸고 있다. 고객들이 부담없이 찾아 오도록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.

WSJ 기사

KOCHAM | 460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